【 해외금융뉴스: 미국】

2009년 미국 재정적자, 전후 최고 예상

□ 美의회예산국(CBO: Congressional Budget Office)은 2009년 미국 재정적자가 전후 최고인 1조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.

o 이와 같은 기록적인 미국 재정적자에는 美차기행정부의 7천7백5십억 달러의 경기부양 재정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2009년 GDP의 8.3%에 해당하며, 2008년 4천5백5십억 달러의 2.6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함.

□ CBO는 2009년의 세입은 전년대비 6.6% 감소하는 반면, 세출은 17%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, 지출의 대부분은 금융위기 해소에 쓰인다고 언급함.

o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(TARP: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)으로 알려진 7천억 달러 구제기금의 보조금지급 비용은 1천8백9십억 달러로 평가되며, 이는 1달러 지출에 25센트의 보조금을 주는 격이 됨.

o 국영모기지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된 일회성 총액도 2천3백8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.

□ 또한 CBO는2007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3년 동안 재정적자는 55% 증가하며, 부채/GDP비율은 36.9%에서 전후와 유사한 54.2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
o 세입, 세출, 재정적자 예측을 위해서 경기부양대책이 없을 경우 2009년 GDP는 전년대비 -2.2%, 주택가격은 -14%, 실업률은 2010년에 9.2%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함.

□ 美차기행정부는 7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표하고 있지만,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, 실제로 2009년 재정적자를 조 단위로 까지 늘리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.

(Financial Times, 1/7)